

# 梨大博物館 所藏

## 「青華白磁松竹人物文 항아리」와

### 「鐵畫白磁 雲龍文 항아리」

姜 敬 淑

朝鮮王朝는 農村手工業으로는 充當할 수 없는 量的 官府用, 官中用 또는 貴族用의 物品을 必要로 하던 社會였다. 高麗末부터 대두된 官匠制 手工業은 朝鮮初에 들어와 強力한 中央集權의 體制의 확립아래서 그 性格이 뚜렷해 졌다. 뿐만 아니라 世宗朝로 부터 成宗朝에 이르기까지 民族文化가 完成되고 朝鮮王朝의 基本法典인 經國大典의 편찬으로 全般的인 王朝의 統治秩序가 堅固히 確立되어 갔다. 따라서 이와 같은 政治와 社會를 背景으로 한 陶磁器의 生産은 前王朝에서 볼 수 없었던 긴 線 安定된 形態, 힘찬 躍動같은 것을 나타내게 되었다. 더우기 明과의 접촉으로 새로운 樣式과 技術이 導入되었고 이에 자극을 받아 스스로 國內産彩料(土靑)를 구할려는 노력이 일어났고 드디어는 國産彩料로 文樣을 그리게 되면서 비로소 朝鮮 獨自的인 青華白磁器를 製作할 수 있었으리라고 본다.

그러므로 朝鮮王朝의 官匠制 手工業에 따르는 中央官窯的인 性格을 띠운 陶磁器 製作地는 적어도 一五世紀 頃에는 京畿道 廣州地方에서 자리를 잡았던 것 같다. ①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기록으로는 世宗實錄 地理志(二四三)에 廣州를 上品磁器의 生産地로 지적한 점 ②, 成俔(二四三九—一五〇四)의 慵齋叢話 卷一〇에서 「全國에서 가장 우수한 沙器가 廣州沙器며 每年 派遣되는 司甕院 官吏에 依하여 봄부터 가을까지 監造

되어 御府에 보내어졌고 世宗期에는 白磁가 御器로 專用되었다」 ③ 라고 한 點等을 들 수 있다. 그러나 廣州 官窯에서 언제부터 回回靑을 彩料로 하는 青華白磁나 石間朱를 彩料로 하는 鐵畫白磁器를 燻造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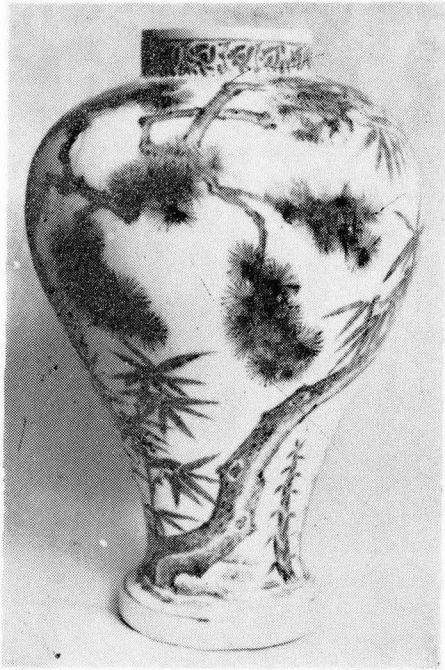
世宗朝에 이미 明의 青華磁器가 朝鮮에 들어오고 있었다고는 하나 回靑이 中國에서 輸入되는 實情이었기 때문에 이 當時 青華磁器의 製作品은 매우 稀貴했을 것이며 실제로 國內産 土靑이 求得되지 않아 世宗朝의 御器는 白磁가 專用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世祖朝에 이르러서는 全羅道 康津에서 採取 進上되었었고 ④ 또 密陽과 義城에서도 回回靑의 原料가 계속 採取 進上되었었다. ⑤ 이는 계속 明으로부터 자극을 받은 결과이며 青華磁器의 製作에 있어 回回靑의 確保가 보다 절실했을 것이고 그만큼 需要量이 늘어난 結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世祖九年 回回靑을 採取 進上하고 世祖一〇년에는 燻造에 成功해서 ⑥ 世祖 때 彩磁를 檢용하였다 ⑦고는 하나 國內産 回回靑으로 燻造된 그릇의 數는 얼마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國內産 土靑으로 만들어진 世祖年間의 青華白磁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장차 廣州 中心의 初期 青華白磁窯址의 調査 發掘의 성과가 이것을 解決해 주리라 믿는다.

그 후 睿宗期에 이르러서도 國內産 土靑에 依한 陶磁器 燻造에 많은 關心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靑磁器를 燻造 進上한 者에게 賞職과 賞布를 授與한다는 기록이 보이고 있다. ⑧ 成宗期에 이르러서도 靑磁器의 製作은 계속 研究 검토 되었을 것이며 그 結果 絶對年代를 가진 國寶 第一七六號로 지정된 東國大博物館 所藏 「青華白磁 弘治二年銘 松竹文 항아리」(높이 四八, 七cm, 입지름 一三, 一cm, 굽지름 一七, 八cm)와 같은 우수한 作品을 製作하였다고 본다. ⑨ 弘治二年은 一四八九年(成宗二二〇)으로서 이 以前부터 이런 種類의 항아리들이 제작되었었지만 絶對年代를 가진 그릇이 이 항아리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 항아리야말로 이러한 手法의 항아리의 製作年代 推定에 重要な 基準이 된다. 이 항아리의 特徵은 內傾한 直立 口緣, 高麗靑磁 梅瓶과 비슷한 어깨線, 밑으로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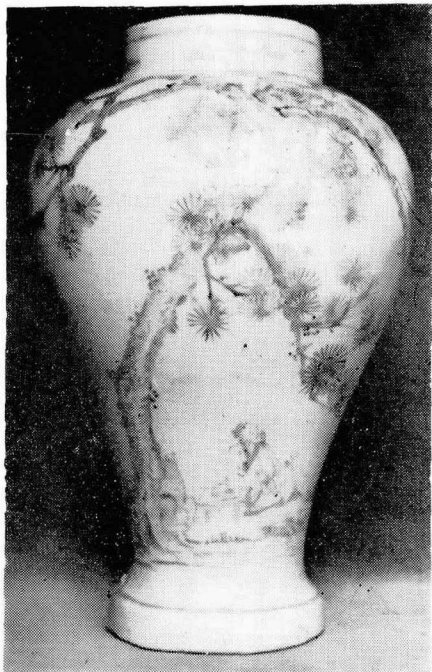
려와 가늘어진 허리부분, 급히 反轉되어 직선으로 내려온 特異한 굽의 樣式 그리고 陶工이 아닌 畫員의 筆致로 향아리 全 空間을 세련된 寫實 風의 松竹文으로 가득히 메우고 있는 上品의 官窯 製作品이다. ⑩

이러한 作品에는 이미 알려진 「靑華白磁 弘治二年銘 松竹文 향아리」와 같은 솜씨를 보여주고 있는 梨大博物館 所藏의 「靑華白磁 松竹人物 文 향아리」가 있고 이와 形態가 類似하여 제작연대의 推定이 可能한 「鐵畫白磁 雲龍文 향아리」가 있다.

「靑華白磁 松竹人物文 향아리」(높이 四七 cm, 입지름 一五, 三 cm, 굽 지름 一六, 七 cm, 배지름 三〇, 六 cm)는 「靑華白磁 弘治二年銘松竹文 향아리」와는 各部의 치수에 있어 一—二 cm의 차이가 있을뿐 거의 同一한 形態다. 特히 향아리 어깨 曲線과 밑으로 내려와 잘록해지면서 다시 反轉되어 거의 직선으로 내려간 特異한 굽이라던지 안쪽으로 기우는 듯한 거의 直立의 적당한 높이의 口緣의 形態에서도 두 향아리의 솜씨가 同一하다. 그러나 어깨 曲線에 있어 梨大博物館 所藏의 향아리가 훌쩍하여 긴것같이 느껴지지만 능숙한 繪畫의인 文樣이나 製作솜씨는 두 作品



圖一. 靑華白磁弘治二年銘松竹文향아리



圖三. 靑華白磁松竹人物文향아리



圖二. 靑華白磁松竹人物文향아리

모두 같은 畫家의 作品이거나 그 수제자의 作品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유사성이 있다. 여하튼 梨大博物館 所藏의 향아리는 「靑華白磁弘治二年銘 松竹文 향아리」로 말미암아 年代 推定이 可能한 重要한 향아리다. 「靑華白磁 弘治二年銘 松竹文 향아리」나 梨大博物館 所藏의 향아리 文樣은 明 靑華白磁의 모방에서는 이미 벗어나서 朝鮮朝 特色이 나타난 繪畫文樣이라는데 特徵이 있으며 朝鮮 初期 繪畫史 研究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世祖九年 「回回靑相似石」이라는 土靑을 發見 進上한 후 弘治二年까지는 약 一五年이 경과하고 있으므로 國內產 土靑을 가지고 당대 명성이 있던 畫家와 합작하여 實力을 과시한 作品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 몇가지 점에서 梨大博物館 所藏 향아리의 製作年代는 「靑華白磁 弘治二年銘 松竹文 향아리」보다 약간 뒤 늦게 제작되었다고 생각된다. 그 理由는 잠깐 言及했지만 우선 形態에서 特徵있는 어깨線의 當당한 鑿창감이 줄어들고 있다는 點, 口緣部 文樣이 「靑華白磁 弘治二年銘 松竹文 향아리」에서 보이는 寫實的인 蓮唐草文(一部分만 제외하고는 모두 修理되었음)이 아니고 半文樣된 唐草折枝文으로서 모두 여섯 곳에 간단히 配置하고 있는 점이다. 이와 비슷한 口緣部 文樣으로는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白磁鐵畫 梅竹文 향아리」(II)를 들 수 있는데 이 향아리는 肩部와 밑 部分의 一部 文樣의 숨씨가 다름뿐 향아리의 當당한 形態는 製作時代가 近接해 있음을 보여주며 特히 口緣部 文樣으로서 特有한 半文樣化된 唐草折枝文의 類似性이나 대나무의 筆致에 注目하게 되고 아울러 두 향아리의 제작연대의 推定도 가능해진다. 또 「靑華白磁 弘治二年銘 松竹文 향아리」나 梨大博物館 所藏 향아리가 모두 基本 윤곽, 이를테면 老松의 휘어지는 曲線과 角을 지며 左右로 彎은 가지의 位置나 대나무의 布置法 등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梨大博物館 所藏 향아리는 대나무 몇그루를 빼고 독서와 풍류를 즐기는 두 사람의 人物과 심부름하는 童子像을 配置한 점이 다름뿐이다.

또한 「靑華白磁 弘治二年銘 松竹文 향아리」의 소나무와 대나무 밑부

분에 보이는 들불(혹은 蘭草)의 描寫에 있어서 細筆의 능숙한 線을 보이고 있어 壬辰亂 以後 향아리와 瓶에서 크게 유행하는 草花文의 始源的인 文樣이라고 생각되며 梨大博物館 所藏 향아리에서도 들불의 묘사를 하고 있기는 하나 짧고 투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에 注目하게 된다. 또 소나무의 활짝 핀 잎의 묘사에서도 技法上의 鈍化를 느끼는데 即 「靑華白磁 弘治二年銘 松竹文 향아리」의 松葉은 末葉에 몬혀진 靑華물감이가 그 면에 잘 먹여져서 로 잉키는 듯이 활짝 퍼지고 있어 애초의 기대보다 훨씬 寫實的인 表現이 이루어진 反面 梨大博物館 所藏 향아리는 솔잎이 서로 엇키듯이 활짝 퍼져서 못하고 숨김 個體가 서로 떨어져 表現되고 있어 寫實的인 描寫에서는 역시 떨어져 있다. 대나무의 表現에서도 힘찬 筆勢가 減退되어 弘治二年 향아리에서 같은 힘을 느낄 수 없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선미로 보이는 두 人物과 한 童子像이 묘사되면서 어디인가 文氣가 서려있어 이 향아리만의 特有한 맛을 풍기고 있다. 책, 책상, 향아리 그리고 향로 같은 물건들을 老松아래 내어다 놓고 무성한 소나무그늘 아래에서 소나무 香氣를 맡으며 지긋이 눈을 돌려 冥想하고 꽃이 자라오른 대나무를 감상하는 듯도 하고 또 아래에는 어린 대나무들이 많이 자라올라 한결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場面을 감상하는 듯도 한 情景에 잠겨있는 모습이 다. 또 童子가 거문고로 생각되는 樂器를 들고 뒤를 따르고 있는 모습은 이 향아리만이 지닌 우수한 布置와 描寫法이라 하겠다.

口緣部 一部가 修理되었었고 굽에는 구울때 자연히 터진 두 곳의 龜裂이 있다. 釉藥은 半透明의 淡靑白의 白磁로써 향아리全體에 골고루 施釉되었고 光澤도 좋은 편이며 氷裂은 없다. 굽에는 胎土비집받침의 사용 흔적이 네 곳에 있고 一部에는 모래가 많이 붙어 있어 굽이 매끈하게 처리되지 못했지만 一五世紀 末葉의 이런 種類 향아리를 代表할 만 하다.

다음의 「鐵畫白磁 雲龍文 향아리」(사진四) (높이 五八, 四cm, 입지름

一五、八cm, 굽지름一五、七cm, 배지름二五、二cm)도 製作年代 推定이 可能하다.

酸化鐵을 主成分으로 하는 彩料로 白磁에 文樣을 그린 陶磁器가 鐵畫 白磁인데 언제부터 이런 種類들의 그릇들이 만들어졌는지 分明하지는 않다. 그러나 一五世紀 中葉 國內產 土靑으로 靑華白磁가 만들어지던 時期와 거의 때를 같이 하여 製作되었으리라 보고 그 수효는 극히 적었다고 생각된다. 一六世紀에 들어서 세련되어 크게 번창한 代表的인 例가 제룡산 가마의 제작품인 粉靑沙器 鐵畫文이라 하겠는데 이 계통의 粉靑沙器도 壬辰亂 以後로는 製作되지 않고 있다. 粉靑沙器의 鐵畫文이 나 白磁의 鐵畫文이 모두 鐵彩料로 文樣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文樣의 內容이 다르다 할찌라도 서로 연관을 시켜서 年代를 推定할 수도 있다. 容器는 아니라도 絶對年代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酸化鐵로써 큰 씨를 쓴 墓誌 宗류를 들 수 있는데 아직까지 알려진 例로는 成宗朝 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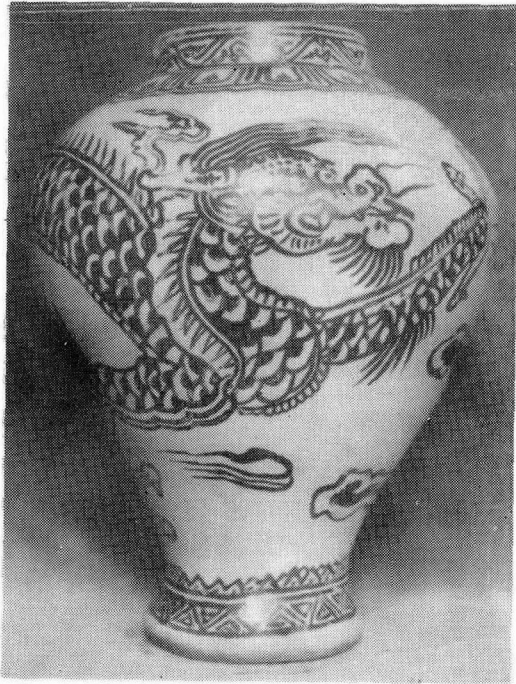


圖 4. 鐵畫白磁雲龍文항아리

前의 것은 거의 없다. 따라서 一五世紀 中葉 鐵畫白磁器가 제작되기 시작하여 一五世紀 後半에는 제법 많은 數의 鐵畫文 白磁器가 제작되었다고 보는데 이 당시 확실한 作例 또한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여기에 紹介하고자 하는 梨大博物館 所藏의 「鐵畫白磁 雲龍文 항아리」는 初期 鐵畫白磁를 代表하는 作品이다. 이 항아리도 「靑華白磁 弘治二年銘 松竹文 항아리」와 그릇의 形態가 類似하기 때문에 關心을 끌었을 뿐 아니라 寫實的인 雲龍의 描寫에 특징이 있다. 또 口緣部、肩上部、底部에 나타내는 圖式的인 文樣으로 볼때 「靑華白磁 弘治二年銘 松竹文 항아리」보다 製作年代는 조금 앞선다고 본다. 「鐵畫白磁 雲龍文 항아리」의 口緣은 높고 內傾한 直立 口緣을 가졌는데 이런 口緣 형태는 一五世紀 末葉 항아리 口緣의 特徵이다. 그리고 어깨線은 보기 좋게 흘러내려 당당하게 膨창되었다가 양 허리로 잘록히 내려와 약 三〇도 각도로 살짝 反轉되어 조금 벌어지더니 바닥에 이르러서는 曲線을 내면서 깎아 등글게 처리하고 안으로는 굽을 파내어 깨끗이 마무리하고 있는 점은 ⑫ 「靑華白磁 弘治二年銘 松竹文 항아리」나 「靑華白磁 松竹人物文 항아리」의 굽과는 手法上 차이를 보이고 있다.

口緣部에는 한 줄의 線을 긋고 그 아래 圖式化된 變形 唐草文帶를 질서 정연히 돌리고 口緣과 接해있는 어깨 上端에는 역시 잘 정돈된 二重의 蓮瓣文帶를 돌리고 蓮瓣文 안에는 각각 한송이 꽃을 配置시키고 있다. 항아리 허리 아래로 밑 部分에는 두 단의 文樣帶를 設置하고 있다. 上端은 圖式化된 蓮瓣文帶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을 重瓣蓮花文의 변형이며 一五世紀 粉靑沙器 항아리 ⑬에서 일연의 共通된 蓮瓣文帶를 볼 수 있음은 이 항아리의 製作年代를 推定케 해 준다. 下端의 文樣帶도 圖案化된 蓮瓣文으로 上端의 蓮瓣文帶보다 더욱 정연한 幾何學的인 圖案文이다.

主文樣은 雲龍文으로 한 마리의 龍이 구름사이를 뚫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姿勢로 항아리의 全空間을 채우고 있다. 윤곽을 잡고 鐵彩를 한 부분도 있으나 陶工의 솜씨가 아닌 書員의 솜씨로 寫實的으로 描寫하고

있다. 이를테면 부들뜬 눈, 위로켜 올려진 코, 견치와 같은 이빨의  
 表現, 휘날리는 턱, 수염과 머리카락, 左右로 벌린 두 다리는 힘차게  
 몸을 전지하는 듯이 세 발가락이 균형을 이루고 물고기 지느러미 같은  
 것을 활짝 펴서 다리에 힘을 주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다시 몸은 항아  
 리를 휘어돌아 가면서 꼬리가 항아리를 감는 듯 표현하고 있으며 뒷다리  
 가 다시 밑으로 내려와 굵은龍의 몸에 균형을 주고 있다. 살아 번득이  
 는 듯이 보이는 비늘이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 되어있고 사이 사이에서  
 구름이 빠른 속도로 天空을 달리는龍의 형태에 실감을 더해주고 있다  
 雲龍을 主文樣으로 그린 항아리 예는 몇 있다. ⑭ 그러나 이들 作品 모  
 두가 梨大博物館 所藏의 雲龍文 항아리 보다 時代도 뒤 떨어지고 文樣  
 자체가 변하여 寫實的인 文樣에 充實하기 보다는 民藝化하여 民衆의 美  
 意識과 融合하여 새로운 面에서의 雲龍文樣으로 변하고 있다.

胎土는 입자가 고운 정선된 胎土로 붉은색을 띄우고 있고 항아리의  
 色調는 灰白이고 器面의 처리는 깨끗하나 雜物이 더러 섞여있다. 釉藥  
 은 파르스름한 우유빛으로 얇게 施釉되어 있고 鐵의 發色은 매우 우수  
 하다. 修理된 곳이 있고 도질을 使用하여 정성껏 구워져 굵밀 처리가  
 깨끗하다. 王室用 항아리였음에 틀림없는 一五世紀 中央 官窯의 代表的  
 인 作品이라고 본다.

(註)

- ① 姜萬吉, 「分院研究」, 亞細亞研究 第二十號,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一六五九, 頁八一
- ② 世宗實錄 卷一四八 世宗實錄 地理志 京畿道 廣州牧條「磁器所曰一在州東伐  
 乙川上品
- ③ 成倪, 慵齋叢話 卷一〇「每歲遣司藥院官分左右邊各率畫吏從春至秋監造而輸  
 納于御府……世祖御器專用白磁」
- ④ 世祖實錄 卷三〇 世祖九年 五月 「全羅道敬差官丘致峒得回回青於康津以進」
- ⑤ 世祖實錄 卷三一 世祖九年 七月 「慶尙道敬差官柳緩來渡……密陽府回回青相  
 似石……義城縣回回青相似石……」

⑥ 世祖實錄 卷三四 世祖一〇年 八月 「全羅道敬左官丘致峒探順天府回回青相似  
 石畫沙器燔造并探康津縣青鐵并以進」

⑦ 成倪, 慵齋叢話 卷一〇「至世祖朝雜用彩磁」

⑧ 睿宗實錄 卷八 睿宗元年 十月 「全羅道觀察使曰康津縣所產回回青魯已採取試  
 驗間有眞實者鄉可訪問公私沙器燔造時須用回回青疑似沙土試驗以啓邑人得此彩  
 色以進者或賞職超資叙用或賞布五匹廣諭本道居民并諭諸道

⑨ 韓國美術全集 一〇卷 李朝陶磁 圖版八〇 및 解說 參照

⑩ 이와 같은 形態의 항아리로는 몇 점 있었다고 하나 現在 國立中央博物館 陳列  
 室에 진열되어 있는 것으로는 尹章燮氏 所藏「白磁 항아리」를 들 수 있다.

⑪ 國立中央博物館 陳列室에 展示中이며 韓國美術全集 一〇卷 李朝陶磁 圖版  
 一一一 參照

⑫ 이와類似한 罽의 形態는 國立中央博物館 陳列室에 陳列中인 洪斗榮氏 所  
 藏「青華白磁 梅竹文 항아리」를 들 수 있다.

⑬ 慶北大博物館 所藏「粉青沙器象嵌蓮花文 扁瓶」, 國立中央博物館 所藏「粉  
 青沙器 印花文 항아리」와「粉青沙器 彫花蓮唐草文 항아리」그 외 尹章燮 所  
 藏「白磁象嵌草花文瓶」

⑭ 國立中央博物館 陳列室에 陳列中인「白磁鐵畫雲龍文 항아리」三點과 白磁鐵  
 畫文은 아니라도 東垣美術館 所藏「青華白磁雲龍文 항아리」그리고 이외에  
 도 몇 점 있다.

(梨花女子大學校 講師)